회당선생문집(悔堂先生文集) 신원록(申元祿)

직계도

11世 원록(元祿)
父 : 수(壽) 祖父 : 준정 (俊禎)
음파(邑派)

신원록(申元祿)

항목 ID	GC05200965
한자	申元祿
이칭/별칭	계수(季綏) , 순보(順甫) , 회당(悔堂)
분야	역사/전통 시대 ,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효자·열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하창환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516 년 - 신원록 출생
몰년 시기/일시	1576 년 - 신원록 사망
추모 시기/일시	1615 년 - 신원록 효자문 건립
사당|배향지	장대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장대리
성격	효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조선 전기의성 출신의 효자.

가계

본관은아주(鵝洲). 자는 계수(季綏)·순보(順甫). 호는 회당(悔堂). 퇴재(退齋) 신우(申祐)의 6세손이다. 참봉(參奉)을 지낸 신수(申壽)의다섯 아들 중 셋째로 태어났다. 형은 신석록(申錫祿)과 신택록(申宅祿)이며, 동생은 신도수(申道洙)와신헌록(申憲祿)이다.

활동 사항

신원록(申元祿)[1516~1576]은 효성과 학문이 모두 뛰어났다. 11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인근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 집에서 수백 리가 떨어진 팔공산까지 직접가서 약을 구해 왔다. 그러한 정성으로 형인 신원복(申元福)과 함께 8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연친곡(宴親曲)」 8규(閨)를 지어 불렀다. 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세 번 성묘를 하였다.

남명(南冥) 조식(曺植)에게 먼저 나아가 학문을 닦다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하자 그곳으로 나아가 배움을 청하였다. 그리고 스승 주세붕이 세상을 떠나자 심상(心喪) 삼년을 지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 군수로 재임할 때에는 백운동 서원에 머물며 구봉령(具鳳齡), 조목(趙穆), 김팔원(金八元) 등과 강론하며 교유하였다.또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을 종유하며 학문에 매진하기도 하였다.

1556년(명종 11)에는 서원을 세워 의성(義城)이 관향인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을 배향하는데 앞장섰으며, 이 일로 "장천(長川)"이라는 사액을 받게 되었다.그 밖에 향리를 위해 스승 퇴계에게서 향약을 필사해 와 실행하고,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진휼장(賑恤場)을 운영하고,고장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소과(大小科) 출신인사들의 모임인 연계소(蓮桂所)를 설립하고, 문중 인사를 모아 사당에 참배하고 학문을 권장하는 모임인 월삭회(月朔會)를 조직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상훈과 추모

세상을떠난 지 39년 뒤인 1615년(광해군 7) 그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그가 살던 마을에 효자문이세워지고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 參議)에 추서되었다. 그리고장대 서원(藏待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교남지(嶠南誌)』

『의성지 집록』(의성 문화원, 1994)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시스템(http://people.aks.ac.kr/)

회당선생문집(悔堂先生文集)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회당선생문집 (悔堂先生文集)
저자	성명	신원록 (申元祿)
	자	계수 (季綏)
	호	회당 (悔堂)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769
권수		4
책크기		30.9×21.3 ㎝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회당문집』은 신원록(申元祿 ; 1516~1576)의 시문집이다. 신원록의 자는 계수(季綏), 호는 회당(悔堂),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이 책은 6대손 정모(正模)가 1740년(영조 16)에 편집했으며, 간행은 1769년경에 이루어졌다. 시(詩)는 화답시가 대부분이고, 평담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서(書)는 주세붕과 서원의 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장천서원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잡저(雜著)에 실려 있는 서원에 대한 기록은 초기 서원의 운영과 재정연구의 자료가 된다.

신원록은 수(壽)의 아들이며 의성(義城)사람이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11세 때 부친의 병을 구하기 위해 팔공산(八公山)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고 8년 동안 간호했다. 조식(曺植)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다가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우자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고 장천서원(長川書院)을 창건하여 김안국(金安國)을 봉향하였다.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고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되었다.

간행년대 15-16c

데이터구분 CE

문집명 회당집 (悔堂集)

간략서지 古 3428-554

간략해제 李光庭의 발문과 崔晛(1563-1640)의 묘지에 따르면 신원록의 문집은 1739년 경에 士林들의 주도로 간행을 위해 遺文과 자료가 정리되었던 것 같지만 정확한 간행 연도와 주도 인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문집에 수록된 글들을 통해서 보면 1750년에 權相一(1679-1760)에 의해 쓰여진 <師友錄>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간행 시기는 1750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같다. 문집의 권두에는 이광정이 쓴 서문과 鄭模가 편집한 연보가 있고 권 1에는 賦 4편, 詩 45首, 권 2는 書 2편, 雜著 6편, 祭文 3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 3, 4는 부록인데 권 3에는 孝友錄, 行狀, 拾遺, 墓誌, 墓表, ≪續三綱行實圖≫와 ≪聞韶誌≫에서 발췌한 신원록의 효행에 관한 기록, 祭墓文, 奉安文, 祝文 각 1편과 上樑文 2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 4는 師友錄, 師友錄跋, 墳墓圖, 周世鵬이 신원록에게 준 遺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효우록>은 신원록의 형 元福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신원록의 효행과 효자문이 세워지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사우록>은 손자 悅道가 편집한 것으로 신원록과 교유관계를 맺었던 74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들이 신원록에게 준 詩文을 모아 두고 있다. 4편의 賦는 名利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적인 성찰과 공부를 통해 진정한 君子를 지향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書는 주세붕과 서원의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서원의 운영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잡저의 기록들 속에는 16세기 초기 서원의 운영과 재정 실태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다.

편저자 신원록 (申元祿)

저자개요 1516-1576 (중종 11-선조 9)字: 季綏, 號: 悔堂, 本貫: 鵝州, 父: 壽, 母: 義興 朴氏

저자내용 11살에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혼자 八空山에 들어가 약초를 구해오고 8년 동안 병간호를 위해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지냈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1538년 성균관에서 수학했고, 1543년 주세붕이 竹溪書院을 세우자 문하에 들어가 학문에 정진했다. 1551년 생계를 위해 湖南長水學이 되어 지방의 유생들을 교육했다. 1556년 죽계서원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뜻 맞는 사람들과 서원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長川에 터를 닦아 공사를 시작해 1569년 건물을 완공하여 金安國(1478-1543)을 봉안하고 長川書院이라고 명명했다. 1560년 여씨향약을 기본으로 하고 예안향약에서 세부 조목을 취해서 향약을 반포하여 풍속의 순화에 힘썼다. 1575년 모친상을 당해서는 6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눈비를 가리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시묘살이를 하다 그로 인해 병을 얻어 1576년에 죽었다. 그 후 지극한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효자문이 세워지고 호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義城의 藏待書院에 제향되었다. 權相一이 쓴 師友錄跋文에는 신원록의 학문을 周世鵬(1495-1554)

에게서 수학함으로써 발단이 되었으며, 曺植(1501-1572)에게 감화를 받고 만년에는 李滉(1501-1570)에게서 얻은 바가 있다라고 그 연원을 밝히고 있다.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739. 李光庭이 신원록의 7 세손 龍起의 부탁을 받고 쓴 문집의 서문으로, 신원록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고 서원 건립을 통해 斯文을 흥기시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적고 있다.
悔堂先生年譜 (年譜 1)	鄭模가 편집한 신원록의 연보로 연대순으로 중요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一

三近賦 (1)	知? 仁? 勇 세 덕목을 통해 聖賢의 완전한 도(達道)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읊고 있는 賦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만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氣質의 편차와 物慾의 가림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성현의 완전한 덕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마음 속의 사욕을 극복하고 공부를 통해 성현의 완전한 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知? 仁? 勇이다. 知는 知恥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지향점을 알게 되고? 지향점을 향해 학문에 매진하면 자신의 氣가 자연히 道와 합치되어서 마침내는 仁에 돌아가게 되고 道에 도달할 수 있다.
霧豹賦 (2)	표범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을 읊고 있는 賦로? 깊은 산 속에서 안개 속에 자신을 가리고 성장해 마침내는 찬란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범을? 학문을 통해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켜 이치에 통달하고? 안으로 덕을 쌓아 자연스럽게 밖으로 찬란히 드러나게 되는 君子에 비유하고 있다.
名者造物之所忌賦 (3)	세상의 名利에 얽매이지 않고? 안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내실을 다져나갈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賦다.
三山賦 (5)	道家의 三神山에 관한 說을 근거없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君子는 산을 보고 자신을 세우며? 仁을 두텁게 체득한다'라는 교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극한 즐거움의 경지라는 것을 안다면? 구태여 세상 밖에 있는 三神山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詩	棲白雲洞月夜有感二首(1543)? 贈同志(1554)邀康友(1568)? 次康友韻? 往蔚山散步南軒? 自歎(1551)? 赴金景放酒席與諸友共賦? 游中臺寺(1552)? 癸丑冬在洛陽不禁思親之淚因占一絶(1553)? 贈友人(1554)? 早春月夜登樓有感? 夜聞聞?雨? 江上贈別韓虞卿? 題寄傲亭? 過風川峽過韓佰益閒居亭? 謝權夢祥佩酒來慰? 江上卽事? 詠金松隱萬年松? 修定鄕約有感而作(1560)? 次換鵝亭韻? 述懷? 登樓? 贈寄梅村? 旅館書懷? 客中? 次吾魚寺韻? 再用前韻書懷? 旅館? 書懷? 思家?

次友琴堂韻? 次別全菊齋由行二首? 遙贈曹幼淸鄭仲尹?
五月初九日李景明與其弟會于淨襟堂酒半景明忽吟一聲歌裏擧盃輕之句要我足成故?拙以呈? 贈全菊齋? 病中謝友人來訪? 手種黃菊垂陽相對軒窓愛而詠之-二首?
偶吟? ?席口占一絶? 送柳義興放還京城-二首? 贈宋而栗? 題金內禁亭子?
賀李君鎭魁蓮榜? 贈別全菊齋還鄕? 張天樞母夫人輓.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739. 李光庭이 신원록의 7세손 龍起의 부탁을 받고 쓴 문집의 서문으로, 신원록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고 서원 건립을 통해 斯文을 흥기시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적고 있다.
悔堂先生年譜 (年譜 1)	鄭模가 편집한 신원록의 연보로 연대순으로 중요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二

M 上愼齋周先生 (1)	1545. 신원록이 周世鵬에게 보낸 편지로? 과거에 金安國이 와서 유생들을 깨우치고 학자금을 희사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주세붕에게 한 번 와서 유생들을 흥기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答院中諸君子 (2)	1570. 신원록이 長川書院의 유생들에게 보낸 편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학자금을 관장하는 業儒齋를 설립하고 서원의 운영에 힘써 왔음을 말하고? 부족하던 서원의 운영 경비가 최근에 마련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論 (3)	≪논어≫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이다. 사람의 본성은 모두 善하지만 이치를 깨닫는 것에는 선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자각한 사람이 자각하지 못한 사람을 깨우쳐 주고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서로간에 자신이 깨우친 점을 상대에게 보태준다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교화되어 그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관점에서 ≪논어≫의 이 구절을 논하고 있다.
業儒齋完議 (7)	1548. 향교의 학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業儒齋를 만들면서 그 내력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향교에 마련된 학자금의 연원과 그 동안의 관리 실태를 밝히고 무분별한 관리 방식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태수의 자문을 받아 학자금 운영 규칙을 정하고 이를 운영할 業儒齋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濟場志 (9)	1554. 두 해에 걸쳐 큰 기근이 발생하자 지방관이 신원록에게 백성을 구휼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글이다.
書鄕約後 (19)	향약의 조목을 정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씨향약의

	4 조목을 기본으로 삼고 이황의 예안향약에서 세부 조목을 취해서 첨가하고 벌칙을 3 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하부 조목을 정해서 총 30 여조로 된 향약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힘써 지켜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글이다.
慈母影幀識 (9)	1575. 어머니 박씨가 93 세가 되었을 때 영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붙인 글이다.
長川書院營建顚末 (10)	15 년(1556-1570)에 걸친 장천서원의 건립에 대한 전말을 기록한 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56 년 봄? 서원을 세울 것을 뜻맞는 사람들과 논의하고 宅地를 선정하고 땅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다. 1557 년 봄? 공사를 시작해 부지를 조성하고 우선 십여 간의 건물 뼈대를 세우다. 1558 년 봄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중단하다. 연이어 두 해 동안 큰 흉년이 들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다. 1569 년 李陽元의 협조를 얻어 다시 공사를 시작해 서원의 완공을 보고 학생을 모았다. 1570 년 서원의 이름을 長川이라고 명명하다.
祭金侯文 (12)	金士傑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인품을 기리는 글이다.
祭趙使君文 (13)	趙宗敦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이다.
祭季氏文 (14)	막내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이다.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739. 李光庭이 신원록의 7 세손 龍起의 부탁을 받고 쓴 문집의 서문으로, 신원록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고 서원 건립을 통해 斯文을 흥기시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적고 있다.
悔堂先生年譜 (年譜 1)	鄭模가 편집한 신원록의 연보로 연대순으로 중요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三(附錄)

孝友錄 (1)	1576. 신원록의 형 元福이 그의 효행을 기록한 글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11 살에 팔공산에 올라 100 여리를 헤맨 끝에 약초를 캐왔던 일? 8 년 동안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아버지를 간호했던 일? 어머니의 상을 당해 지극한 효성으로 상을 치루고 시묘살이를 하다 병을 얻어 끝내는 목숨을 잃었던 일 등? 그의 효행과 관계 있는 행적과? 그의 효행이 알려져 효자문이 세워지게 된 경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行狀 (9)	1739. 李光庭이 쓴 신원록의 행장으로 가계? 후손? 그의 효행과 관련된

	행적? 행장을 쓰게 된 경위 등을 적고 있다.
拾遺 (16)	신원록과 부인의 효행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일화를 간략히 기록하고 있는 글이다. 신원록의 외손 李象靖(1710-1781)의 집에서 발견된 글이다. 일화는 象靖의 祖母가 전해들은 말을 기록한 것인데? 한 노인이 땔감을 날라주고 홀연히 사라진 일과 한 여인이 베를 짜주고 사라진 일이다. 부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신선이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이다.
墓誌 (17)	1635. 崔晛(1563-1640)이 쓴 신원록의 묘지로 그의 행적을 행장에서 발췌해 간략하게 연도별로 서술하고 있다.
墓表 (22)	1645. 신원록의 5 대손 德涌이 쓴 묘표로? 그는 신원록의 훌륭한 행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친족들과 의논해 묘표를 세우고? 崔晛이 쓴 묘표와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효우록>? <사우록> 등의 글에서 일부를 발췌해 그 대강을 묘표에 새긴다는 내용이다.
續三綱行實 (25)	신원록의 효행을 기록한 ≪속삼강행실도≫의 글이다.
聞韶誌 (26)	신원록의 효행을 기록한 ≪문소지≫의 글이다.
祭墓文 (26)	지방관으로 부임한 安應昌이 신원록의 묘에 제사할 때 쓴 제문으로? 그의 효성이 兄을 위험한 강에서 업고 건널 수 있는 우애로? 또 임금의 상을 당해 삼년동안 素食하는 忠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후손과 후학을 흥기시키는 모범이 되고 있음을 적고 있다.
藏待書院奉安文 (27)	신원록을 藏待書院에 봉안할 때 李玄逸이 쓴 봉안문이다. 내용은 부모에 대해 효도를 다했던 일과 흉년에 백성들을 구휼에 위해 힘썼던 일? 주세붕의 문하가 되어서 학업에 열중했던 일 등을 칭송하면서 그의 행적이 후학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常享祝文 (27)	李惟樟이 쓴 축문으로? 그의 효제와 덕행이 학업과 표리로 상응하고 있음을 기리는 내용이다.
風詠樓上樑文 (27)	洪萬朝가 풍영루를 짓고 상량할 때 쓴 글로? 신원록을 모범으로 삼아 유생들이 학업과 덕행을 부지런히 닦아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尼山書院廟宇上樑文 (29)	尼山書院에 묘실을 짓고 상량할 때 南夢??가 쓴 글로? 신원록의 효행과 덕행을 본받아 이곳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739. 李光庭이 신원록의 7 세손 龍起의 부탁을 받고 쓴 문집의 서문으로, 신원록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고 서원 건립을 통해 斯文을 흥기시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적고 있다.
悔堂先生年譜 (年譜 1)	鄭模가 편집한 신원록의 연보로 연대순으로 중요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四(附錄)

師友錄 (1)	1606. 신원록의 손자 悅道에 의해 편집된 글로? 신원록이 교유했던 74 人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들이 신원록에게 준 詩文이 함께 실려 있다. 이 글 속에는 李滉? 周世鵬? 曺植? 金麟厚? 朴雲 등 당대의 巨儒들이 보인다. 74 人의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滉? 周世鵬? 曺植? 朴雲? 金就成? 林薰? 金光粹? 金麟厚? 趙穆? 金希參? 金富弼? 朴承任? 黃俊良? 金克一? 金誠一? 李楨? 曺湜? 盧?? 吳健? 柳景深? 柳仲?? 鄭琢? 林芸? 金彦璣? 金八元? 全夢奎? 李光俊? 權審行? 朴承侃? 周?? 李國柱? 李友閔? 金?? 李暹? 李晁? 崔海? 崔深? 朴灝? 朴演? 趙昱? 黃應淸? 柳希潛? 盧克愼? 鄭竹軒? 曺淑? 隱約齋(姓名未詳)? 鄭允良? 鄭?? 鄭瑜? 盧遂? 孫盡忠? 張文輔? 張文佐? 金宇弘? 梁喜? 梁欣? 梁澹? 李景明? 李克恭? 金騫? 徐洞? 蔡無咎? 郭?? 郭走日? 郭?? 李山岳? 李伋? 李俔? 李德龍? 李聃龍? 友琴堂(姓名未詳)? 金彦?? 康明善? 元凱.
師友錄跋 (師友錄跋 21)	1750. 權相一(1679-1760)이 쓴 < 師友錄 > 의 발문으로? < 사우록 > 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李滉? 周世鵬? 曹植에게 신원록이 학문을 배웠음을 강조하고 있다.
悔堂先生墳山圖(墳山圖 1)	1739. 신원록의 6 세손 彦模가 그린 그림과 글로? 신원록의 묘지가 있는 지역을 그림으로 그리고? 말미에 誌를 첨가하고 있다. 誌에서 그는 후손들이 선조의 묘를 찾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을 걱정해 분묘도를 작성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愼齋周先生遺墨	周世鵬의 遺墨으로 신원록이 받은 것이다. 신원록의 외후손 李象靖이 이 유묵에 발문을 붙이고 있다.